

통합 교과형 논술과 논술 교육의 방향*

박정하**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통합 교과형 논술의 특징
3. 통합 교과형 논술에 대한 평가와 논술 교육의 방향
4. 글을 맺으며 : 국어 교육과 논술 교육

1. 들어가는 말

2006년 한 해는 공교육 논술 교육의 원년이라 불려도 될 만큼 공교육 내에서 논술과 관련된 의미 있는 변화가 급격히 진행된 시기였다.

우선 논술 교사 연수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30시간 기본과정의 경우 서울시는 1,850명, 경기도는 온라인 연수까지 합치면 약 2,0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한다. 다른 시도에서도 연수 교사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EBS 논술연수에도 전국적으로 약 1,000명 참여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추가로 개설한 전문 과정에도 300명 정도 참여하였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¹⁾ 참여도에서도 논술 연수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연수로 자리

* 본 연구는 국어교육학회 제36회 학술발표대회(2007. 4. 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1) 이 통계 수치들은 2007년 2월까지의 결과만 반영하고 있다. 2007년 3월에서 8월까지의

잡고 있다. 국어과 이외에 다른 교과 교사들의 참여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학교 차원의 자율적 연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7년 1월에는 교육부가 강사요원양성과정(60시간)을 마련하였다. 각 시도에서 핵심 논술 교사 178명이 참석하여 전국적 연결망이 형성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원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논술 교육 동아리를 학교별로 공모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000팀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공교육 논술 지도의 중심점이 형성된 셈이다. 개별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논술 교육 지원단을 조직함으로써, 교사, 조직, 지원체제로 이루어진 논술 교육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단 대입 논술 때문에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어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대입 논술과 구분하여 ‘순수 논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참 인상적이다. 입시를 떠나서,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모든 교과에서 교육 및 평가 방식으로 논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고 ‘순수 논술’이 강화되면 입시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도 함축한다. 내신, 수능, 논술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발전의 삼충탑’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도 들어 있다.

2006년이 공교육이 논술 교육을 잉태한 시기였다면 이제 우리는 출산의 시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그 방향 그대로 잘 밀고 나가 튼튼한 아이를 낳아야 한다.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논술 연수도 이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 쪽에 중점을 두어 전문화, 단계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대상의 연수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지원 없이는 논술이 공교육에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보다는 운영의 정상화로 초점을 옮기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작문 시간을 정상화한다든지, 논리적,

연수를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의 전문가인 철학, 논리학 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논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인다든지, 사회, 도덕, 과학 등 논술 지도가 쉽게 가능한 교과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 및 교사 양성 과정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 글은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통합 교과형 논술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2절), 통합 교과형 논술을 평가하면서 논술 교육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3절), 이와 관련하여 국어 교육학계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정리하는 것으로(4절) 글을 맺고자 한다.

2. 통합 교과형 논술의 특징

(1) 통합 교과형 논술의 기본 개념

‘통합 교과형 논술’에 대해 가장 널리 퍼져있는 오해는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논술이라는 생각이다. 이 말은 특이한 형태의 새로운 논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논술은 원래부터 통합교과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논술은 어떤 한 과목에 치우쳐서 그 과목의 지식을 묻는 시험, 즉 특정 교과에 대한 서술형 시험이 아니다. 그 점에서 과거의 본고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국 여러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통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논술은 본질상 통합 교과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가 통합 교과형 논술을 내세운 것은 새로운 유형을 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원래 논술의 성격이나 취지에 충실한 시험을 시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렇다면 통합 교과형 논술의 본질과 특징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합 교과’란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

다. ‘혼합 교과’, ‘통합 교과’, ‘융합 교과’라는 세 개념을 의도적으로 구분해 보면 통합 교과 개념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혼합 교과’는 여러 과목이 병렬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과목의 지식과 내용들이 함께 동원되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쓴다면 교과들의 물리적 결합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융합 교과’는 각 교과의 정체성이 사라져서 하나로 묶이고, 그 결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더 포괄적인 교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교과들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과목이 생기는 것이다. ‘통합 교과’는 융합 교과와 거의 같은 차원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은 혼합 교과와 융합 교과의 중간쯤에 머물고 있다. 융합 교과와는 달리 각 교과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혼합 교과처럼 그저 병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사이의 칸막이를 헐고 서로 다른 교과 간에 내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교과별로 공부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학습내용은 개별 교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벽을 넘나들게 된다. 그래서 한 교과에서 배운 것을 다른 교과에 적용하면서 통합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국사 시간에 18세기 한국 사회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나 그것을 국사로 끝내지 말고, 국어 시간에 18세기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하여 배울 경우, 국사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고 적용해서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할 때, 통합 교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²⁾ 따라서 통합은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해야 하며, 교육은 그런 통합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합 교과적 접근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배양을 교육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2) 이 사례는 통합 교과가 교과 통합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교과 통합도 단순히 교과 내용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고력의 통합을 의미한다면 통합 교과의 구체적 한 측면, 혹은 한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통합 교과의 핵심은 배운 내용을 영역을 넘어 적용, 응용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에 적용, 응용하는 것이 일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꼭 교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과 밖으로 적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교과 개념은 교과 통합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얻은 지식과 정보를 통합해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하며, 그래서 통합 교과형 논술은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³⁾ 물론 표현이나 구성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약화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사고 능력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창의력에 대한 강조

평가의 측면에서 보자면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논술의 변별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통합 교과형 논술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은 기본적으로 평가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실제로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그래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좁게 규정하자면 창의력 중심의 논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 통합 교과형 논술의 내용상 특징이다. 이때 ‘창의력’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적’이라는 말을 쓰는 두 표현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창의적 발상’과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이다. 이 둘 중에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창의적 발상일 것이다.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을 해 내는 것도 창의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창의성은 보통 ‘발산적 창의성’이라 불린다. 그러나 논술에서는 창의적 발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하다. 이때 창의성은 어떤 것일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가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응용 능력을 가리킨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항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은 이미 가진 지식만으로 직접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

3)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보도 자료 (2005. 11. 28) 참조.

한 격차를 메워 넣고 한계를 뛰어 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진 정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논술이 말하는 창의력이다. 그냥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수렴적 창의성’이라 부르기도 한다.⁴⁾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 관점 전환 능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재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관점을 학생이 만들어 내기는 힘들다. 결국 다른 영역에서 활용되던 것을 그 영역을 넘어 새롭게 적용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화’와 ‘유전자 결정’이라는 관점을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나 도덕에 적용해보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렇게 한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그 영역 안에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영역의 벽을 넘어 다른 영역에 응용해보는 것, 이것을 ‘영역전이성’이라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말이 논술의 창의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개념이다.⁵⁾ 그리고 영역 전이성은 통합 교과와 핵심 원리를 잘 보여준다. 앞서 든 예처럼 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 해석을 시도하듯, 한 교과에서 배운 것을 그 교과의 내용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교과에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이 통합 교과와 핵심 개념이기 때문이다.

창의력을 영역전이적인 통합적 사고능력이라고 할 때, 실제로는 영역 전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교과안에서 이루어지는 가까운 영역전이도 있고, 교과와 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먼 영역전이도 있다. 국사에서 배운 것을 세계사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은 비교적 가까운 영역전이에 속하지만 국어의 시를 이해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은 그보다는 먼 영역전이에 속한다. 통합 교과형 논술 문제는 창의적 적용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먼 영역전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더 선호

4) 김영정 외, 『사고와 논술』 교사용 1권 (기초 상), 27~28쪽.

5) 창의적 사고의 본질을 ‘영역전이성’으로 보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두 자료의 공통된 관점이다.

한다. 수리 논술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도이다. 수학에서 배운 원리를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이 수리 논술의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이다.

논술에서 창의성이 강조된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른바 ‘고전 논술’이라 부르던 과거의 논술에서도 창의적 적용 능력은 평가의 핵심 영역을 차지하였다. 고전 논술의 전형은 고전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서 어떤 관점이나 내용을 해석해 낸 다음 이를 현실이나 현대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제시문 내용을 현대 사회의 문제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적용하느냐가 핵심적인 평가 항목으로 부각되었다. 창의적 적용 능력이 복합적이고 이중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시문이 문학 작품이나 신화, 설화의 이야기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열린 텍스트일 경우, 자신의 관점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텍스트를 해석하고, 해석된 내용을 또 다시 창의적으로 현실 문제에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고전 논술도 창의적 적용이 매우 강조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재나 문항의 형태에서는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합 교과형 논술은 고전을 현실에 적용하는 포괄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의 대상이나 영역을 지정해 줌으로써 창의력을 더 세밀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의적 적용의 문제가 논술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핵심적 평가 대상이었다는 점은 통합 교과형 논술이 새로운 논술이 아니라 논술의 원래 의도를 더 뚜렷이 살리려는 시도임을 분명하게 해 준다.

(3) 과정 중심 평가의 강화

통합 교과형 논술은 창의력을 비롯한 다양한 사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 방식에서도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 중심 평가를 벗어나 과정 중심 평가를 선호하게 된다.⁶⁾ 이것이 바로 통합 교과형 논술의 형태상 특징이다. ‘결과 중심 평가’는 어떤 문제 해결 과정

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마지막에 도달한 결과를 한편의 완결된 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부분의 논술 문제가 지금까지 채택한 방식으로서 속칭 ‘통글 쓰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비슷한 답안도 많이 나오고, 과연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단기간에 비슷한 자료를 토대로 배경 지식을 정리하고 이를 상투적인 구성방식에 대입해서 글을 만들어 내다보니 비슷한 답안이 양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어떤 답안을 보았을 때, 나름의 사고 과정을 거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대비를 통해 급조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결과 중심 평가는 사고 과정 전체를 촘촘히 평가하기는 힘들고 산출한 결과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제자나 채점자의 목표는 실제 능력을 길러온 학생과 급조해서 훔내 내는 학생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과정 중심 평가’이다. 과정 중심 평가는 글 쓰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을 분절화 하여 하나하나 단계별로 평가한다. 달리 말해 중간의 사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례차례 배치하여 결과만이 아닌 중간 과정까지 점검함으로써 결과에 이르는 실제 사고 과정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사고 과정 평가의 가정 전형적인 모델은 <분석적 이해-비판적 평가-창의적 적용> 능력을 단계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단계가 대학 수학의 일반적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학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우선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분석적 이해 능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도표나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해한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대학 공부답지 않다. 자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취사선택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해 가야 한다. 그래서 비판적 평가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머리에 담아두기만 해서

6)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보도 자료(2005. 11. 28) 참조.

는 안 되고 필요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창의적 적용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 서술 능력이 필요하다. <분석적 이해—비판적 평가—창의적 적용>의 과정은 다른 사람과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진행될 때 성공적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수학을 위해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 보니, 대입 논술 문제가 분석적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다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사고 과정 전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실제로 2007년 전반기에 실시한 각 대학의 모의 평가 문제도 논제들이 이와 같이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모의 논술고사 문제 중 한 문항을 살펴보자. 이 문항은 세 개의 논제로 이루어진다.

<논제 1> 위의 세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시오.

(200자 이내)

<논제 2> 각 제시문의 핵심적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600자 이내)

<논제 3>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시오. (800자 이내)

세 논제는 각각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가? <논제 1>은 제시문의 공통 내용을 분석하여 요약하는 문항으로서 분석적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논제 2>는 각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론 제시의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논제 3>은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주어진 과제에 적용하여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바로 창의적 적용이 문항의 핵심이다. 이렇게 분석적 이해, 비판적 평가, 창의적 적용의 세 단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연세대 논술고사 모의시험 문제도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역시 세 문항으로 구성된 예를 살펴보자.

<논제 1> 제시문 (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

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각각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시오. (배점 : 30점)

<논제 2>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제시한 제시문(나), 제시문(다) 가운데 본인은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오. (배점 : 35점)

<논제 3> 제시문(나), 제시문(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의 두 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시오. (배점 : 35점)

이 문제의 경우 세 논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논제 1>은 제시문 (가)~(다)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제기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와 (다)에서는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시문 분석을 통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논제 2>는 (나), (다)가 제시한 해결책을 서로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비판적 평가 능력이 핵심이다. <논제 3>은 겉보기에는 (라)의 두 표를 해석하는 문제이지만, (나), (다)가 제시한 내용을 적용하여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적용 능력이 문제의 핵심이다. 역시 분석적 이해, 비판적 평가, 창의적 적용의 세 단계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이러한 세 단계로 논술 문항이 구성되는 것 역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이전의 논술고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고전 논술’에서도 고전 텍스트를 지문으로 주고, 먼저 텍스트 이해 능력을 평가한 다음,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오늘날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전형적이었다. 통합 교과형 논

7) 모의 평가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단계가 전형적으로 드러난 경우들이 많지만, 변형된 형태의 모의 평가 문제들을 제시한 대항도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세 단계이긴 하지만 창의적 적용을 다시 두 방향으로 나누어 문항화 함으로써 전체 4문항을 출제하였다. 고려대의 경우는 더 변형된 형태의 모의 평가 문제를 출제하였다. 비판적 평가의 과정은 약화되고 분석적 이해와 창의적 적용을 결합하는, 즉 이해한 다음 바로 적용하는 문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실제 출제되는 문제는 변형이 생길 수 있으나 사고 과정상 분석적 이해, 비판적 평가, 창의적 적용의 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인정될 수 있다.

술은 지문의 성격이 더 다양해지고, 교과와의 관련성이 전체적으로 더 강화되었으며, 한 논제로 결합되었던 것을 능력 별로 하나하나 나누어 묻는 점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과정 중심 평가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최소한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여러 개의 문항에 차례대로 답하게 함으로써 배경지식을 암기하거나 상투적인 글 구성 요령을 익히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학습해서는 절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글을 이해한 다음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꾸준히 쌓은 다양한 사고 능력을 발휘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문항을 세분화하여 요구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문항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평가의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셋째, 문항별로 채점하여 합계를 내기 때문에 답안 하나를 채점할 때보다 훨씬 더 변별력이 살아난다. 이러한 장점들도 인해 통합 교과형 논술은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3. 통합 교과형 논술에 대한 평가와 논술 교육의 방향

이러한 특성을 가진 통합 교과형 논술은 과연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답하면서 논술 교육의 방향을 아울러 모색해 보자. 앞의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가와 교육 양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 평가의 측면

우선 통합 교과형 논술이 가진 평가 방식에 대하여 이전의 논술에 의

숙한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논술’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글을 마음껏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다. 또 일정 분량 이상 되어야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에 유리하다. 그런데 통합 교과형 논술은 문항을 세분하여 답안의 성격을 일일이 규정하면서 짧은 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논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변형된 본고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특정 방식의 글쓰기를 ‘논술’로 이미 전제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평가 도구로 활용되는 논술은 평가 상황이나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또 변형되어야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논술이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맥락은 최소한 세 가지 이다. 첫째는 자격시험이다.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그 예이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 혹은 대학 입학 자격시험으로 논술 고사가 운영될 경우에는 합격과 불합격만 가리면 된다. 이 경우 한 편 긴 글을 쓰게 해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둘째는 전형 자료 중 하나로 사용할 경우이다. 미국의 에세이가 바로 그 예이다. 이 경우는 학생의 사고 능력만이 아니라 가치관, 잠재력 등을 비롯하여 자아 전체가 잘 드러나는 글이 필요하다. 따라서 완결된 한 편의 긴 글을 쓰는 방식으로 적절히 평가가 가능하며, 짧은 글을 여러 편 쓰게 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논술이 선발 고사이기 때문에 응시자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세밀하게 변별해야 한다. 이 경우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쓰는 방식으로는 세밀한 평가와 변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 논술 고사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이다. 따라서 여러 문항을 주고 평가하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선발 고사란 맥락에서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논술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 학생의 능력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 교과형 논술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더 근본적으로 인문적 소양의

평가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이전의 ‘고전 논술’도 앞서 보았듯이 적용 능력을 중시했다. 주로 인문학적 고전 텍스트를 읽게 한 후 고전의 문제의식이나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보다는 논제가 다루는 주제나 제시된 텍스트가 인문학적인 것이었다는 외적 특징이 우선 더 부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고전 논술이 과거의 것을 현실에 적용, 응용하게 했다면, 이제 통합 교과형 논술은 고교 교과와 관련시켜 영역 전이성이 더 부각된다는 특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소재나 주제는 드러나게 인문학적인 것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인문적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통합 교과형 논술은 대체로 우선 텍스트를 읽는 능력에서 출발하여 읽은 것을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한 다음, 현실의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삶에 대한 총체적 조망을 기반으로, 읽고 평가하면서 사고한 내용을 적용,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밟게 한다. 이때 제시되는 문제는 대체로 실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인문학이 ‘사람다운 삶’에 대해 규범적으로 반성하고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문교육은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하여 ‘사람다운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 한다면, 통합 교과형 논술은 바로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인문적 사고와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교육을 견인하고,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육의 측면

교육과 관련해서도 통합 교과형 논술은 교육 내용과 교육 주체라는 두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통합 교과형 논술은 교과서의 주관식 문제 및 이를 활용한 내신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와 장기적으로 코드를 맞춰갈 경우 공교육 정상화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교과과정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해

야만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상태를 말할 것이다. 현재 교과서를 보면 서너 쪽 넘길 때마다 생각하고 써보아야 할 주관식 물음들이 나온다. 이 중에는 배운 지식을 복습, 확인하는 문제도 있지만 배운 내용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해보는 심화응용 문제들도 많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주관식 문제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과 내용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 훈련을 하면서 각 교과별로 한 단계만 더 나가기만 하면, 그 학습 결과가 실제로 통합 교과형 논술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통합 교과형 논술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이 교과서의 주관식 문제와 흡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통합 교과형 논술은 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고교 교과 과정을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할 것이다.

교육 주체 차원에서도 통합 교과형 논술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논술 교사가 글쓰기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 전체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모든 과목에서 논술을 교육 방법 및 평가 방법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술을 좁은 의미의 글쓰기 시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초래되었다. 첫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국어과의 영역이고 논술도 쓰기이니 당연히 국어과에 맡아야 한다는 형식 논리를 내세워 국어 교사에게 논술 교육의 십자가를 혼자 다 지도록 한 것이 문제이다. 국어 교사가 논술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논술이 '쓰기'이기 때문에 국어 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읽기, 생각하기, 쓰기 전체에서 국어 교사가

8) '공교육 정상화'란 표현은 현재의 공교육이 송두리째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밝혀 둔다. 필자가 의도하는 것은 공교육 비하가 결코 아니고, 공교육의 모든 부분이 제 궤도에 오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국어 교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에서 나누어 훈련하고 교육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논술 교육의 무거운 책임을 국어과에만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 둘째는 논술을 쓰기 시험으로 생각하면서 더구나 단기간에 준비하다 보니 글을 번듯하게 꾸미고 구성하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은연중에 더 중요시하면서, 단기간에 요령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논술 준비를 해온 점이다. 그러다 보니 한 편으로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약화된 채 잘 쓴 글처럼 보이기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에 골몰하게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어떻게 쓸 것인가’도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단순한 표현과 구성의 문제로 축소시켜 테크닉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통합 교과형 논술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논술 교육의 주체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논술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고 능력 훈련이기 때문에 각 교과에서 교과 내용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사고 훈련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 논술 교사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중 비국어과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경향은 이런 인식을 직접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개별 학교에 여러 교과의 교사로 구성된 논술 교육 동아리를 결성하게 한 것은 이런 인식을 제도적으로 확정시킨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자연계 논술의 시행으로 수학, 과학 교사들 중 논술에 관심을 가진 교사가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논술 교육에서는 이렇게 각 교과가 느슨한 팀티칭⁹⁾의 형태로 연합하여 함께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두 가지 이다.

우선 논술의 본질적 성격상 논술 교육은 모든 과목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은 교육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독립 과목이 아

9) ‘느슨한 팀티칭’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꼭 한 수업에 여러 과목 교사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각 과목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각기 논술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도 시행되되 중구난방으로 혼란해지지 않도록 미리 과목 간에 서로 의논하고 조정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논술교육동아리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라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법으로서 모든 교과 교육에서 수용, 채택되어야 할 수업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교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이 방식을 모든 교과에서 채택하여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교과가 담당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여러 교과가 함께 참여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과목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논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교과에서 책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교과의 참여가 필요하다. 논술 교육에서는 콘텐츠(내용, 무엇을 쓸 것인가)와 프리젠테이션(논의방식, 어떻게 쓸 것인가), 두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교과가 이 두 측면을 함께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쓸 것인가’ 부분은 일단 국어 교사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도 논증적 글쓰기인 논술의 경우, 논리적 비판적 사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 논리학 교사가 함께 참여한다면 교육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외국어 교사들도 같이 참여해서 일조해야 한다. 특히 영어 교사의 경우 영어 교육에서의 에세이 작성(essay-writing)은 우리의 논술과 본질상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바로 글쓰기 교육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무엇을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특히 모든 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무엇을’ 부분은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사고한 결과가 결국 콘텐츠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각 교과에서 교과 내용을 활용해서 교과 내용에 맞는 사고 훈련을 함께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교과서의 주관식 문제를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다양하게 기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내용 면에서 본질상 통합교과적일 수밖에 없는 논술 교사에서는 이러한 응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

과학 전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쟁점,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쟁점들은 한 교과에 입장에서만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논술 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콘텐츠 부분은 도덕 및 사회 교과는 물론이고 수학 및 과학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원리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개별 교과에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면 보편적 원리 차원의 접근에 강점이 있는 철학 교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결국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논술 교육의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팀 티칭을 통하지 않고는 논술 교육이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 다른 교과의 교사들도 논술 교육의 한 축임을 분명히 자각하면서 국어 교사와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통합 교과형 논술은 이런 자각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글을 맺으며 : 국어 교육과 논술 교육

통합 교과형 논술 하나만으로 우리의 논술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논술 교육의 가장 기본 영역을 담당해주는 국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고, 또한 가장 주요한 논술 교육의 주체인 국어 교사가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접근할 때 논술 교육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 기회를 통해 현 시점에서 국어 교육이 논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을 맺는 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작문 교과의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이다.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작문 시간을 정상화 하여 글쓰기의 기본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작문 교육이 정상화되면 논술 교육은 공교육에서 굳건한 토대를 갖게 될 것이다. 단, 작문에서 논술 교육의 비중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작문 교과의 정상화에 오히려 역행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작문 시간에 논증적 글쓰기의 기본도 반드시 가르쳐야 하지만 다양한 글쓰기 체험을 갖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논증적 글쓰기가 다양한 글쓰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증적 글쓰기는 설득을 겨냥하는 글쓰기이다. 이것은 의견이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며, 삶을 고양시키는 적극적 측면보다는 삶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측면과 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감동을 통해 삶을 고양시키는 글쓰기가 더 차원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학과 예술과 종교는 이런 공감과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감상문 쓰기를 비롯하여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는 다양한 문예적 글쓰기가 인문 교육에서 더 근원적인 차원이며, 작문은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를 체험하고 훈련하는 과목이 되는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어 교사의 양성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논술 교육을 국어 교사 혼자 담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어 교사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논술 교육은 분석적 이해, 비판적 평가, 창의적 적용, 논리적 표현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런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적 훈련이 국어 교사 양성 과정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어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문학과 어학의 전문성이 주로 강조되었고, 논술 교육에 필요한 능력은 일부 부수적으로 길러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배양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작문 교육론>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직도 글쓰기, 나아가 논증적 글쓰기인 논술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전체 교육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판적 사고와 논증적 글쓰기를 훈련하는 과정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읽기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수능 언어 시험은 읽기 중심 시험이다. 그러나 대학의 공통된 인식은 신입생들의 읽기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3년 내내 읽기 중심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읽기 능력이 기대 이하라는 것은 현재의 읽기 교육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한 분석은 위험하겠지만 1500 내외의 짧은 지문을 읽고 선다형 문제를 푸는 수능 언어의 읽기 학습에 매몰되어 생겨난 폐해임에는 분명하다. 통합 교과형 논술은 대체로 분석적 이해 능력 평가에서 시작하며, 이때 텍스트 이해가 잘못되면 평가와 적용도 다 방향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활동 중심의 독서 교육을 통한 읽기 능력 향상에 국어 교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국어 교사는 결국 논술 교육의 주된 주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주체들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통합적 프로그래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전체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철학, 논리학 교사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현재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논술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철학이나 논리학을 교양과목으로 선택하고 이를 담당할 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논술의 기초인 논리적, 비판적 사고 교육을 그 전문가인 철학 교사에게 맡길 경우,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10)

* 본 논문은 2007. 6. 28. 투고되었으며, 2007.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7. 7.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경기도 교육청·수성고등학교 논술지도위원회, 『토론으로 여는 통합 논술』, 경기도 교육청, 2007.
- 김광수 외, 『논리·논술 교육의 원리와 실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1998.
- 김영정 외,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
- 김영정 외, 『사고와 논술』 교사용 (1권-8권), 한국교육방송공사, 2006.
- 김영정·박정하 외, 『초·중등·대학에서의 인문 교육 활성화 방안: 논리적 사고력 평가 모형 개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15)』, 인문사회연구회·한국교육개발원, 2002.
- 박정하 외, 『논리와 논술』, 호서대학교 논리논술연구소, 1999.
- 박정하 외, 『대학인을 위한 논술 ; 이론편』, 세종서적, 2002.
- 박정하,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철학과 현실』 54호, 철학문화연구소, 2002.
- 박정하 외, 『중·고등학교에서의 인문 교육 현황 진단 및 정책 대안(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3-03)』, 인문사회연구회, 2003.
- 박정하, 「인문교육의 근본 ; 글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철학 교육의 관점에서」, 『시대와 철학』 14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3.
- 박정하, 「대학 밖의 철학 교육 1 : 고등학교 철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 『대동철학』 24권, 대동철학회, 2004.
- 박정하, 「고교 논술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과 현실』 66호, 철학문화연구소, 2005.
- 박정하 외, 『세상읽기와 논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박정하, 「논술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며」, 『서울교육』 48권 3호, 서울시 교육정보원, 2006.
- 박정하, 「통합교과형 논술, 교과서로 대적하자」, 『대구교육』 44호, 대구광역시 교육청, 2006.
- 백종현, 「논술시험의 의의와 주요요소」, 미발표 논문.
-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2008 정시모집 논술교사 예시문항 보도 자료」(2005. 11. 28).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중등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 강사요원양성과정』,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2007.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중등 관리자 논술 직무연수』,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2007.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중등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 전문과정』,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2007.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중등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 기본과정』, 서울특별시교육연구
원, 2007.

손동현 외, 『학술적 글쓰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초록>

통합 교과형 논술과 논술 교육의 방향

박정하

통합교과형 논술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평가 내용에서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이때 특히 창의성 평가가 부각되는데 이때 창의성은 수렴적 창의성으로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전이성을 말한다. 평가 방식에서는 과정중심평가를 중시한다. 과정중심 평가는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복수의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사고 과정을 세밀하게 평가하려는 것이다. 대학 수학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적 이해-비판적 평가-창의적 적용>의 세 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표준적인 형태이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평가와 교육, 두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선 평가에서는 첫째, 학생의 능력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인문적 소양과 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에서도 내용과 주체라는 두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내용에서는 논술 문항들이 교과서의 주관식 문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체와 관련해서는 논술 교육의 주체를 확대시켜 모든 과목에서 논술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논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문 시간의 정상화, 국어 교사 양성 과정의 개선, 읽기 교육의 개선, 철학, 논리학 교사의 활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핵심어】 통합교과형 논술, 논술 교육,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영역전이성, 과정중심평가, 인문 교육, 논술 교육 동아리, 국어 교육, 공교육 정상화, 작문 교육, 읽기 교육.

<Abstract>

Understanding the cross-disciplinary essay-writing test

Park, Jeong-ha

Cross-disciplinary essay-writing test has two characteristics. It focuses on thinking power for problem solving. Evaluation of creativity is especially important. Here it means convergent creativity that can apply what has learned to different areas of study. Evaluation method puts weight on the thinking process. Cross-disciplinary essay-writing test divides the problem solving process into stages, then poses multiple questions in order to do a detailed analysis of the thinking process. Division into <analytical understanding-critical evaluation-creative application> is the standard model for examining the ability for study in universities.

Cross-disciplinary essay-writing test has good influence on evaluation and education. In evaluation, it increases the fairness. Furthermore, it can evaluate basic abilities in the humanities. In education, it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the public education. And it results in spreading essay-writing education over the all areas of study.

[Key words] cross-disciplinary essay-writing test, essay-writing education, critico-creative thinking, convergent creativity, public education

【토론문】

〈통합 교과형 논술과 논술 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최지현(서원대학교)

궁금한 것이 많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도 많은 발표 내용이라 시간을 아껴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통합 교과형 논술에서는 통합 교과적인 지식이 요구되는가? 그렇다면 그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인용) “통합은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해야 하며, 교육은 그런 통합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합 교과적 접근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배양을 교육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토론자는 교육하고서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통합 교과형 논술의 꽤나 엄격한 성립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용 부분의 의미를 보충해 주시면서, 학생들에게 요구할 ‘통합 교과적인 지식’(발표자께서는 단순히 지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어떻게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묻습니다.

2. 통합 교과형 논술에서는 교과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이 요구되는가?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인용) “통합 교과형 논술을 좁게 규정하자면 창의력 중심의 논술이라

고 할 수 있다. ……논술에서는 창의적 발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 관점 전환 능력이 중요하다. ……한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그 영역 안에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영역의 벽을 넘어 다른 영역에 응용해 보는 것, 이것을 ‘영역전이성’이라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말이 논술의 창의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개념이다.”

(질문) ‘통합 교과형 논술’은 이 발표의 중심 주제이기는 하나, 혹시 다들 이 말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발표자께서는 이 용어와 ‘교과 통합형 논술’을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토론자의 생각에는 이 둘은 매우 다른 이론적, 실천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문의 내용대로라면, 발표자의 ‘통합 교과형 논술’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것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3. 통합 교과형 논술이 맞는가, 아니면 교과 통합형 논술이 맞는가?

(인용) “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어 시간에 문학작품 해석을 시도하듯, 한 교과에서 배운 것을 그 교과의 내용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교과에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이 통합 교과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이다.”

(질문) 반복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만, 토론자가 보기에 발표자의 견해는 오히려 교과 통합형 논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입장과 현재 소통되고 있는 ‘통합 교과형 논술’의 개념은 같다고 보시는지요?

4. 추가적 질문들

가. 발표자께서는 통합 교과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혼합 교과’, ‘통합 교과’, ‘융합 교과’를 구분하셨습니다. 토론자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발표자의 ‘융합 교과’ 개념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나. 발표자는 “논술이 쓰기이기 때문에 국어 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논술 교육에 대한 오해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입니다. 논술 교육의 핵심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능력을 글로 구성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입니까? 만약 글을 통해 비로소 논술이 완성된다면, 발표자는 “모든 과목”의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의 교수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글로 표현하는 부분만은 여전히 국어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다. ‘나’의 판단을 놓고 그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만약 글로 표현하는 부분의 교육이 모든 과목의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실제 수업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라. 발표자는 “논술을 쓰기 시험으로 생각하면서 더구나 단기간에 준비하다 보니 글을 번듯하게 꾸미고 구성하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은연중에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논술 교육을 국어 교사가 담당할 까닭에 생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어 교사들의 교과 전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생긴 현재적 한계라고 보십니까?

마. 발표자께서는 또한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교과에서 여러 다른 양태로 이 수업 방식(토론자 주 : 논술 교육)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초등학교의 교과 체제는 어느 나라나 대개 통합적인 방향에서 구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합 교과 교육은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교를 위해서라면 학제 또는 급별, 학년별에 따른 교과 구성의 변화 추이를 준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5. 의견

토론자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분과 학문 중심으로 세분화된 교과목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은 교과 통합을 통해 통합된 교과 체제를 갖추는 일이라고 봅니다.

통합된 교과 체제를 갖추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또 통합 교과형 논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하지도 간단치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현재의 교과 체제가 담아내려고 하는 교육 내용 또한 충분히 가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현재의 교과 체제가 도입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할 만하고, 또 어느 정도는 쉽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반복하건대 그만큼 이 문제는 간단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지금과 같은 교과 체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보완적 평가 기능을 하게 해야 하는지, 혹은 대안적 평가 기능을 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통합 교과형 논술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재의 교과 체제를 대체할 통합된 교과 체제를 지향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통합 교과형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이 어느 정도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방식을 바꾸고,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교과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해소될 법하지 않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제게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현상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육적 처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가져왔던 스키마들과는 다른 층위의 다른 스키마를 가지고 그 현상의 가치를 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경쟁하는 스키마들을 비교해 가며

그 현상의 가치를 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비교해 보려는 통합 교과형 논술과 교과 통합형 논술입니다. 그 실천은 사뭇 다르고, 요구 조건도 다릅니다. 후자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자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후자는 지식 중심이라고 비난 받고 있는데, 전자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갖게 하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상찬되고 있습니다.

나쁜 실행 방안과 현실화되지 않는 좋은 실행 방안 이 둘을 대비시킨 것 자체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토론자의 입장은 다소 비관적입니다. 이 평가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여야 할까요, 아니면 성취에 대한 평가여야 할까요? 가능성에 대한 평가라면 미리 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걸까요?

토론자가 발표자인 양 행세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발표자 덕분에 갖게 된 생각인지라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